

지역 바이오뷰티 기업 성공 돕는다

전주농생명소재연구원, '성공 전략' 주제 포럼... 10개 바이오뷰티기업과 업무협약 체결

전주시가 지역 친환경 화장품 생산업체의 성공을 돕는 든든한 후원자가 되기로 했다.

시와 (재)전주농생명소재연구원(이사장 박순중 전주부시장, 이하 연구원)은 12일 전주 그랜드 힐스 호텔에서 열린 '2017년 바이오뷰티 포럼'에서 전북지역 10개 뷰티기업과 상호협력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시와 연구원은 이날 협약에 따라 도내 화장품업체의 성공과 지역 바이오뷰티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기술 및 정보를 교류하고, 핵심기술 공동 개발에 나서기로 했다. 또, 기술원이 보유한 기술을 기업에 이전하고, 기업이 어려움을 겪는 애로기술을 해결하는데 적극 지원하기로 했다.

특히, 시와 기술원은 이날 중소뷰티기업 육성을 위해 연구원에서 개발한 미나리 추출물 관련 특허를 바이허브(주)에 기술을 이전했다.

이와 관련, '바이오뷰티 산업의 성공 전략'을 주제로 전주 바이오뷰티 산업의 성공전략을 모색하기 위해 열린 이날 포럼에서는 국내 바이오뷰티 산업 전문가들의 주제발표와 토론이 진행됐다.

먼저, 유수만 YMS마케팅컨설팅 소장은 '화장품산업 동향 및 전주 바이오뷰티의 나아갈 방향'을 주제발표 통해 국내 화장품산업 시장현황에 대해 소개하고 세계 화장품시장의 최신 트렌드, 지역별 화장품산업 지원 정책 등에 대해 소개했다.

윤 소장은 "국내 화장품산업이 글로벌 시장으로 뻗어나가기 위해서는 규



전주시시와 (재)전주농생명소재연구원은 12일 전주 그랜드 힐스 호텔에서 열린 '2017년 바이오뷰티 포럼'에서 전북지역 10개 뷰티기업과 상호협력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제안화와 신소재개발, 원료의 국산화,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력이 있는 고기능성 신제품 개발이 필요하다"라며 "전주시 뷰티산업 발전을 위해서는 신소재 개발 및 응용, 화장품산업 지원, 화장품산업 클러스터의 단계별 뷰티산업 진출 전략을 내실있게 추진해야 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이어, 윤혜진 TNS Korea 상무와 임병연 글로벌코스메틱연구개발사업단 국장, 유진호 고준의약 대표, 장은준 한국보건산업진흥원 연구원이 각각

'화장품 마케팅 전략'과 '화장품 원료 및 제형의 최신 동향', '중국 건강식품 정보 및 진출 전략', '화장품산업 육성을 위한 정부 정책 방향 및 해외진출 지원 사업'을 주제로 발표했다.

발제 후에는 유강열 (재)전주농생명소재연구원장을 좌장으로 유수만 소장장과 임병연 국장, 유진호 대표, 신홍식 (췌계비전 대표, 장선일 전주대 교수, 정병근 바이허브(주) 대표 등이 패널토의를 통해 바이오뷰티산업의

활성화를 위한 전주시만의 차별화된 전략을 함께 모색했다.

유강열 연구원장은 "전주시의 바이오뷰티 성공전략에 대한 포럼 및 그동안 바이오뷰티개발센터에서 개발한 연구성과를 보여줄 수 있어 매우 기쁘게 생각한다"라며 "앞으로도 바이오뷰티 산업을 전주시의 주요 산업으로 발전시키고, 관내 뷰티기업과 상생 발전하는 연구원이 되겠다"고 말했다.

/김민근 기자

한파 녹인 따뜻한 나눔 행렬 이어져

전주시, '따뜻한 이웃나눔' · '희망 나눔캠페인' 전개

연말연시를 맞아 초등학교부터 기업에 이르기까지 각계각층에서 어려운 이웃을 향한 따뜻한 후원의 손길을 건네고 있다.

12일 전주시에 따르면, 전주삼천초등학교 어린이회장은 이날 전주시장실을 방문해 지난달 아나바타 장터를 운영하고 모은 수익금 120만원을 아침밥을 굽는 친구들을 위한 '엄마의 밥상' 성금으로 기탁했다.

이 후원금은 삼천초 어린이회장이 포대 친구들의 어려움을 함께 나누고 함께 성장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회의를 거쳐 결정하면서 이뤄졌다.

또한, 서천초등학교 녹색어머니회와 도서어머니회, 운영위원회도

이날 바자회 수익금 46만여원을 엄마의 밥상에 기탁했다.

전주시 유도협회 임원들도 미래의 꿈나무인 아동들이 건강하고 행복하게 자라날 수 있도록 뜻을 모아 엄마의 밥상에 200만원의 성금을 후원했다.

OB맥주도 아동·청소년의 정서 함양과 마음의 성장을 돕는 희망 도서지원사업인 '마음이 함께 성장하는 지혜의 반찬사업'에 500만원을 기탁하며 힘을 보탤다.

이와 관련, 시는 연말연시를 맞아 '따뜻한 겨울나기 이웃나눔' 행사를 추진하고 있으며, 사회복지공동모금회와 함께 지난 11월 24일부터 '희망 2018 나눔캠페인'도 전개하고 있다. /김민근 기자

덕진경찰서, '온정의 쌀 전달식' 가져

다남마트 전주점 쌀 200포대(10kg) 기부

덕진경찰서는 12일 연말연시를 맞아 '온정의 쌀 전달식'을 가졌다.

이번 행사는 다남마트 전주점에서 쌀 200포대(10kg)를 기부해 범죄피해자와 다문화가정, 북한이탈주민, 소외계층 가정에 전달했다.

이철형 다남마트 사장은 "2년 연속으로 발전시키고, 관내 뷰티기업과 상생 발전하는 연구원이 되겠다"고 말했다.

려운 이웃을 도울 수 있어 기쁘다"면서 "앞으로도 이런 기회가 많아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함한배 서장은 "범죄피해자와 소외계층에 쌀을 기증한 다남마트에 감사드립니다"며 "쌀을 전달받은 가정이 조금이나마 따뜻한 겨울을 보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상민 기자

음주사고 후 도망친 공무원 피해자에게 붙잡혀

음주사고를 내고 도망친 우정청 공무원이 사고 피해자에게 붙잡혀 경찰에 인계됐다.

완산경찰서는 12일 특가법상 도주치상 혐의로 우정청 7급 공무원 A(33)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A씨는 전날 오후 9시 20분께 전주시 완산구 상림동 한 도로에서 주행 중이던 B(47)씨의 승용차를 들이받고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도주하는 A씨를 5km 정도 뒤 쫓아 자신의 차로 앞을 가로막고 경찰에 신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 농도는 0.102%로 면허취소 수위에 해당했다. 경찰은 A씨를 조만간 소환해 정확한 사고 경위에 대해 조사할 예정이다. /이상민 기자

전주 식료품 가공 공장서 화재 1명 부상

12일 오후 2시 49분께 전주시 완산구 평화동의 한 식료품 가공 공장서 불이 나 1명이 화상을 입었다. 이 화재로 샌드위치 패널로 된 공장이 1동(165m²)이 불에 타고, 직원 A(46)씨가 얼굴과 팔, 다리에 2~3도 화상

을 입어 인근 병원으로 이송돼 치료를 받고 있다. 경찰과 소방은 주변 목격자와 공장 직원 등을 상대로 정확한 화재원인을 조사하고 있다. /이상민 기자

전주시, 신속한 제설작업 실시

전주시가 출근길 시민 불편을 줄이기 위해 신속한 제설작업에 나섰다.

시는 지난 11일과 12일 이틀간 대설 예비 특보가 발효됨에 따라 즉각적인 제설대응체계에 돌입, 결빙에 따른 교통사고 예방과 시민 불편 최소화를 위한 제설작업을 진행했다.

시는 제설인원 91명과 제설장비 54대를 동원해 새벽 4시부터 6시까지, 오후 4시부터 6시까지 각각 시가지 주요노선에 대한 제설작업을 실시했다. 또, 열화칼슘 등 제설자재 208톤도 살포해 결빙예방에 힘썼다.

특히, 12일 오전 8시부터는 각 동 주민센터에 배치된 소형살포기를 동원해 이면도로 등 취약지역에 대한 제설작업을 실시, 시민들의 통행불편을 덜었다. /김민근 기자

전주시, '아동·여성안전 지역연대' 우수

13개 초등학교 아동안전지도 제작 위험환경 90% 이상 개선 등 인정받아

전주시에 아동과 여성폭력 예방을 위해 민관협력체계를 잘 갖춘 지자체로 평가됐다.

시는 12일 여성가족부 주관 '2017년 아동·여성 안전 지역연대 운영 부문 평가'에서 도내 기초자치단체 중 유일하게 우수기관으로 선정돼 여성가족부장관상을 수상했다.

이번 평가는 전국 243개 지방자치단체가 올 한해 추진했던 '아동·여성 안전 지역연대 사업'을 대상으로 이뤄졌다.

평가지표는 △실무시례협의회 운영 △지역연대 안전프로그램 사업 △아

동안전지도 제작활동 △교육·홍보사업/안전사업의 4개영역 총 8개 문항 및 우수사례보고서 심사 등이다.

일례로, 전주시 13개 초등학교를 대상으로는 학생들이 직접 아동안전 지도를 제작, 학교 주변의 기관·주민·경찰과 합동으로 주변 위험환경을 90% 이상 개선하기도 했다.

이밖에도 이번 평가항목에 포함되지 않았지만 시는 올해 연대운영위원회와 실무시례협의회 운영 외에도 전주 시민과 함께하는 폭력예방 하나로 문화제를 개최했다. 또, 여성·아동 복지시설 종사자들을 대상으로 '10대정

소년 성매매 현실과 대책'을 주제로 워크숍을 개최하고, 전주시 여성·아동 안전지킴이집 232개소에 풋-SOS 비상벨을 설치해 지역사회 안전망을 구축하고, 사회적 약자인 여성과 아동이 보다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게 했다.

전주시 복지환경과 관계자는 "여성과 아동이 안전한 도시는 곧 도시경쟁력과 삶의 질이 높아지는 것"이라며 "앞으로도 여성과 아동들이 스스로를 지켜나갈 수 있는 안전한 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민근 기자

우리동네 무인주차장 어디에 있을까?

주차하고 구경하고 무인주차장에 주차하면 시간도 절약되고 편리합니다.



[전주시 무인주차장 안내]

- 서부신시가지 도청영**
전주시 완산구 흥산북로 75 (239-2767~69) (연중무휴) 6,000원 기본(30분):600원, 추가(15분):300원
- 서부신시가지 농협중앙회 부근**
전주시 완산구 흥산북로 53 (239-2767~69) (연중무휴) 6,000원 기본(30분):600원, 추가(15분):300원
- 서부신시가지 다은병원 부근**
전주시 완산구 흥산2길 5-12 (239-2767~69) (연중무휴) 6,000원 기본(30분):600원, 추가(15분):300원
- 서부신시가지 KB은행 부근**
전주시 완산구 흥산1길 4-13 (239-2767~69) (연중무휴) 6,000원 기본(30분):600원, 추가(15분):300원

- 노송천 주차장**
전주시 노송여울2길 108 (연중무휴) 6,000원 기본(30분):600원, 추가(15분):300원
- 덕진광장 주차장**
전주시 덕진구 덕진광장로 3 (239-2562) (연중무휴) 6,000원 기본(30분):600원, 추가(15분):300원
- 실내체육관 주차장**
전주시 덕진구 권삼덕로 308 (251-1264) (연중무휴) 4,000원 기본(30분):500원, 추가(15분):250원